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

강화군,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 개최 25일, 명진 컨벤션 웨딩홀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

강화군은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6월 25일, 명진컨벤션 웨딩홀에서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가졌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은 군민의 안보의식고취와 우리 땅의 평화와

자유 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서 기념식에는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시의회 의원,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등을 비롯한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단체 회원, 기관·단체장 등 600명이 참석했다.

하재동 강화군 재향군인회 회장은 "우리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공헌하신 유공자분들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훈 단체의 활성화와 유공자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6·25전쟁 음식 재현 시식회 개최 재현된 음식을 통해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회장 박봉식)가 25일, 강화읍 수협 앞에서 6·25 전쟁 음식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의 달을 맞아 6·25 당시 어려웠던 시절과 피난을 하며 실제로 먹었던 것을 상기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

쟁의 아픔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6·25 전쟁 당시의 재현된 음식을 통해 다시 한번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자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6·25전

쟁 당시 먹던 보리 주먹밥과 개떡, 쭉버무리, 찐 감자 등의 음식을 시식하며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을 회상했고, 전쟁을 겪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 시절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선인들의 고난과 희생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박봉식 회장은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6·25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며 호국보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는 매년 자유 수호 합동위령제,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사랑의 김장 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6.25 전쟁음식 재현

강화군민은 무료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29일~30일 시범운영, 7월 6일부터 정식 운영



강화군, 무더위 떨쳐요!...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강화군이 무더위 속 시원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29일~30일 양일간 무료로 시범운영 후,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물놀이장에는 조합 놀이대, 워터터널, 워터드롭, 바닥분수, 야외 풀장을 비롯해 탈의실(몽골형), 야외샤워장, 그늘막,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며, 우천 시에도 강우 상황에 따라 휴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성인·어린이 구분 없이 1인

당 5,000원으로, 강화군민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여름은 특히나 이른 더위로 물놀이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며, “이용객들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잘 지켜서 물놀이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문의 ▶ 강화군 체육회 032-933-9696
강화군 행정과 032-930-3226

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7월 7일 개장예정

문의 ▶ 강화군 산림공원과 032-930-3467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고자 노력

강화군, 적극 행정 및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직원 교육 실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직원 교육

강화군이 27일, 군청 4층 진달래홀에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적극 행정 및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에게 규제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적극 행정 업무 추

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강사로 활동 중인 이승은 강사가 진행했다.

강의는 ‘나의 행복을 높이는 비밀, 적극 행정’이라는 주제로 ▲적극 행정 및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 ▲적극 행정 및 규제혁신이 필요한 이유 ▲타 지자체 및 강화군의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이 단순히 제도를 이해하기보다 제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화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 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제도 등을 운영해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상담자를 위한 청소년의 가면 심리학’ 주제로 진행 강화군, 청소년 관계 기관 실무자 3차 교육 실시



강화군, 청소년 관계 기관 실무자 3차 교육 실시

강화군이 지난 24일,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 관계 기관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기관 실무자 3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담자를 위한 청소년의 가면 심리학’을 주제로 김덕범 한영대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소년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미숙한 행동이 기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방법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청소년의 이해할 수 없던 행동이 자신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어떻게 공감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4회차 교육은 오는 8월 27일 미술치료를 주제로 ‘그림을 통한 청소년의 마음 읽기(이인영 소장)’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 부모 교육, 관계 기관 실무자 교육, 청소년 안전망 사업 등 강화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유선 문의하면 된다.

- 최벽하 기자

문의 ▶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032-932-1388)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단수 및 긴급여권은 기여금 면제 강화군,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3,000원 인하

강화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 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 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000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단, 만 8세 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여권 대행 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강화군에서는 만 7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발급 여권 무료 우편 배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화요일은 20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의회, 청사 증축 준공식 개최



강화군의회, 청사 증축 준공식 개최

강화군의회가 27일 강화군의회 청사 증축 준공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한 의장 및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등 70여 명이 참석해 강화군의회 청사는 지난 1991년 개원해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지방자치의

구심이 된 공간이었으나, 부족한 공간과 시설 노후 등으로 증축 및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증축을 통해 기존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공간을 확장했으며, 증축된 4층에는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는 공간인 의원사무실과 이를 보조할 전문의원실을 구성했다. 또한, 승강기를 새로 설치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했으며, 노후한 소방 및 통신 설비를 보강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날 준공식에서 박승한 의장은 “개선된 청사 환경만큼 군민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신봉기 발행인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인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공로패 수상



박 승 한
강화군의회 의장

강화군의회는 박승한 의장이 인천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의 10개 군·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공로패는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 온 의장들에게 주어졌다.

박승한 의장은 3선 의원이자 제9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소신껏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 집행부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역대 의회 최초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쌀 미질 개선·돈대 관광 활성화·갯벌자원 활용·청년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지방의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의장의 직책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신봉기 발행인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인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공로패 수상

강화군의회 배충원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배 충 원
강화군의회 의원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이 지난 27일 강화군의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배 의원은 제9대 의원으로 전반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농어업인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배 의원은 “안주하지 않고 발로 뛰며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봉기 발행인



강화군의회 배충원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 통해 열람 가능 강화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 공개



강화군청 전경사진



강화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 공개

강화군이 오는 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의 지급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직불금 신청인의 이름, 신청 농지, 신청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 면적) 등이다.

열람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 모바일로 인증한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기간 이후 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의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이 불가능하다.

올해 강화군은 10,461명(소농 3,934명, 면적 6,527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으며, 신청 농지 규모는 10,993ha(소농 1,215ha, 면적 9,778ha)이다.

군은 향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등록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된 직불금 신청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벤치마킹 위해 용인시 방문 민·관 네트워크 「강화복지포럼」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공동위원장(조인술), 실무협의체 위원장(한상원)과 읍·면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담당공무원 등 40명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 하였다.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 개최 된 전국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우수 기관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과 대상자 및 자원 발굴 연계보다 특화사업 중심의 활동에 치중 된 협의체 위원 역할의 편중화 인식 개편과 다양한 주민조직의 참여를 통한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벤치마킹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인술 위원장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용인시 특화사업들에 감명을 받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민관 합동 지역사회복지구심체로서의 역할에 책임감이 크다며”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민·관 네트워크 「강화복지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13개 읍·면 찾아가는 방문간담회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가올 7월 9일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5개분과 위원들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 할 예정이다.

강화군, 2024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 길상면 편 성료

500여 명 주민들 참석해 열정적인 무대



2024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 길상면



2024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 길상면

강화군이 지난 19일, 길상면 주민복지센터 주차장 야외무대에서 개최한 ‘2024년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주민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개최해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고 읍·면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올해 예정된 총 3회의 행사 중 첫 번째 행사가 길상면에서 개최됐고, 하반기에는 하점면과

송해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행사는 낮 대신 오후 6시에 시작됐으며, 이날 행사장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넓은 주차장을 가득 채워 공연을 즐겼다.

행사는 주민들의 노래 한마당, 재즈밴드 리치파이, 인기 가수 최진희, 지역 가수 이경준, 히트곡 메이커 이은하, 만능 엔터테이너 김성환 등이 함께하며 2시간가량 흥겹고 열정적인 무대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길상면의 협조와 길상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여러 단체의 자발적인 봉사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길상면 주민들의 열정적인 호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전개

장바구니 나눔, 텀블러 사용 등 홍보활동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가 18일, 강화군노인복지관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원들이 장바구니 200개를 나눠주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에 함께해 줄 것을 홍보했다.

임인관 회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며, “살기 좋고 깨끗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부터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바르게살기 캠페인 진행



바르게살기 캠페인 진행

강화군 새마을회, 정성 담은 여름 김치로 사랑 나눔



강화군 새마을회 여름 김치 나눔



강화군 새마을회 여름 김치 나눔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가 25일, 도래미 마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강화군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임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직접 담근 여름 김치를 무더위에 지친 관내 저소득층 80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도 살폈다.

조인술 회장은 “취약계층의 이웃에게 매년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사랑을 느

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 속,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새마을회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강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새마을회는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추석 송편 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이브자리 지원사업 등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읍·면 이장들 함께 격려하고 친목 도모 강화군, 2024년 이장단 체육대회 개최



강화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



강화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



강화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

강화군이 19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강화군이장협의회 주최로 ‘2024년 이장단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 박승한 강화군의회의장, 관내 이장 187여 명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

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은 개회를 시작으로 나들길 걷기와 환경정화 활동, 각 읍·면 대표들의 노래자랑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

김상배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각 읍·면 이장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복리증진과 마을의 화합, 발

전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강화군이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언제나 강화군을 위해 솔선수범 나서 주시는 이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쌓인 일상의 피로도 푸시고 함께 소통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낙상·타박상 사고예방 강화군, '인체 감지 센서 등' 지원 호평



강화군, 인체 감지 센서 등으로 어르신 안전 지켜요

강화군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 감지 센서 등 지원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주 1회 이상 생활지원사가 방문하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특징을 이용해 센서 등의 배터리 충전, 작동 이상 여부를 매주 체크하고 있으며, 낙상·타박상 여부 등 건강 체크도 병행하고 있다.

센서 등을 지원받은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서 스위치를 찾는 데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런데 센서 등을 설치하고 난 후부터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어 매우 편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군은 이 외에도 상반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스티커 컬러링 북, 효도 퍼즐, 주전자 콩나물 키우기, 추억의 간식 만들기, 영양 플러스, 오! 해피데이 등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 해소,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기대 강화군, 볼음도 수리시설 사업 완료



서도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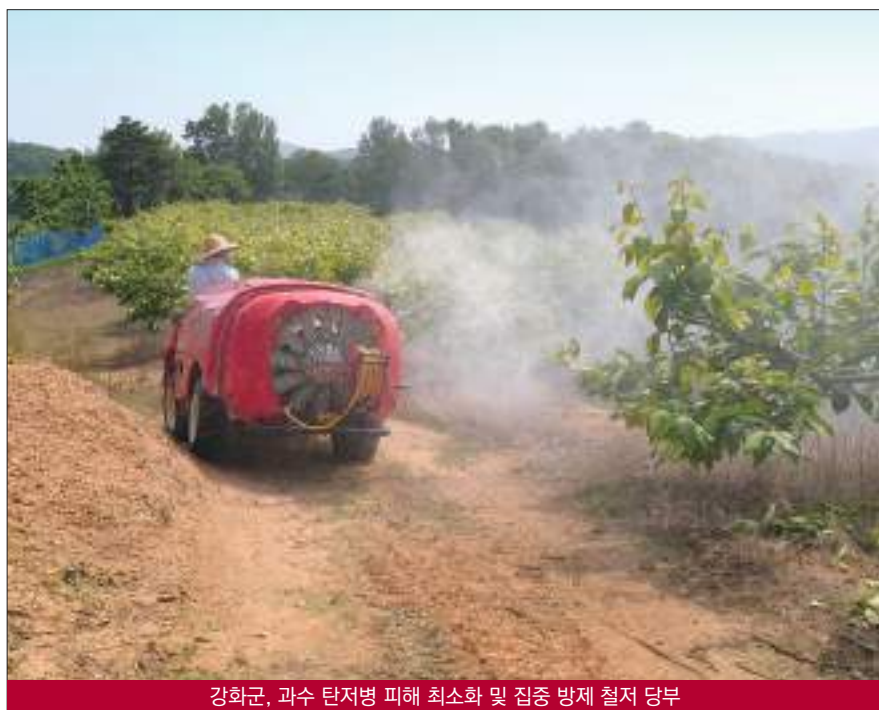
강화군이 서도면 볼음도리 1484번지 일원에 추진해온 ‘서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도면 볼음도리 1484번지 일원은 영농철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뭄 취약지역이다.

강화군은 이를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투입해 올 2월 공사에 착공해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6월 초 폭 4m, 높이 1.5m의 개거수로 290m와 제수문 3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지역 농업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담수하며 물 걱정 없이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섬 지역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강화군 섬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섬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도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 오기 전 보호살균제 처리, 비 온 후 침투이행성 약제로 방제 강화군, 과수 탄저병 피해 최소화 및 집중 방제 철저 당부



강화군, 과수 탄저병 피해 최소화 및 집중 방제 철저 당부

강화군은 사과, 배, 감나무 등에 피해가 큰 과수 탄저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예방과 집중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6~7월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에 발생하는 병해로 25~30℃의 고온과 80% 이상의 높은 상대습도에서 활발하게 발생한다. 탄저

병의 1차 전염원은 지난해 병든 과실 및 가지, 낙엽 등이며 대부분 여름철 관수 시의 물방울이나 빗물에 의해 전파된다.

병원균에 감염된 과일은 환경조건에 따라 4~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2차 전염원인 분생포자의 형성과 함께 병징이 나타난다. 탄저병에 감염되면 과실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이 반점이 점차 커지면서 병반부가 함몰된다. 피해를 입은 과실은 상품성을 잃어 과실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6~7월 철저한 사전 예방 및 집중 방제로 병원균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 감염된 과일이나 가지들

이 있는지 수시로 예찰해 발견 즉시 과수원 밖으로 제거하고, 과수원 내 수관 정리와 배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약제 방제를 위해 비가 오기 전 보호살균제를 처리하고,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침투이행성 약제로 방제한다. 강우량이 많고 연속적으로 강우가 발생할 시에는 정기 방제를 했더라도 강우 사이 또는 전·후에 추가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은 평균기온이 높고 잦은 강우가 예상돼 탄저병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주기적인 예찰과 적기에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등 세심하게 과수원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최벽하 기자

인천강화경찰서, 주민·협력단체 협업 주요공원 범죄취약요소 점검



주민·협력단체 협업 주요공원 범죄취약요소 점검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26일 주민·자율방범대·시민경찰·청소년범죄예방협의체·강화군자원봉사센터·외국인치안봉사단 등 약 100

여명과 함께 관내 주요 공원(갑룡·북산·관청 등 5개소) 순찰 및 비상벨 점검 등 범죄취약요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순찰은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족·연인·청소년 등 많은 인파가 공원에 산책을 나와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원 및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오작동을 점검 함으로써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빠른 신고 출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경찰·주민·협력단체가 협력하여 범죄예방진단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강화경찰서에서는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동막해변 범죄진단을 통해 노후된 범죄예방시설물을 교체하고, 로고젝터 설치 등을 통한 조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규희 경찰서장은 “하절기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과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화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2024. 6. 18.(화) 4층 대회의실에서 강화관내 초등돌봄전담사 32명 대상으로 친절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친절교육으로 서비스마인드 갖추기, 유형별 민원 응대 기술 교육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친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및 적극적인 민원 응대 스킬을 배워 전담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초등돌봄전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친절과 배려는 돌봄 서비스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등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초등돌봄전담사 직무 연수 1차

3000번 직행좌석버스, 7월 1일부터 3000번·3000-1번으로 나뉘어 운행

강화터미널~신촌역 기존 노선 운행 / 급행화 관련 김포시 등과 협의 후 차량 증차도 검토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까지 운행되는 직행좌석 3000번이, 3000번과 3000-1번으로 분리돼 운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직행좌석 3000번은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까지, 3000-1번은 김포 월곶공영차고지에서 신촌역까지 분리·운행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영 중인 3000번 노선이 기점을 경기도에 두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대광위는 지난해부터 인천광역시·경기도·강화군·김포시·운수업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

협의 결과 기존 3000번(23대) 중 새로운 3000번 노선(강화터미널 기점, 8대)은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3000-1번(김포시 기점, 15대)은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대광위, 김포시 등은 기존 3000번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변경 및 정류소 변경과 같은 사업계획 시행 시 관할 관청 간 협의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인천시는 이관 차량이 8대로 배차간격(30분~38분)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강화군과 운수업체의 협의를 거쳐 기존 서울시 구간 정류장과 김포시 구간 정류장을 일부 축소하고, 종점은 신촌역에서 당산역으로 변경해 급행화를 검토했으나, 서울시·경기도(김포시)의 노선조정 의견이 있어 협의완료 전까지는 기존 노선(강화터미널~신촌역)대로 운행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급행화를 서울시, 경기도(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수요증가 등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차량 증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정진기자

기고

조선왕조실록과 정족산사고



정족산사고 장사각과 선원보각

이경수

임금이 말에서 떨어지자

연산군은 나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연산군은 우리가 아는 연산군보다는 덜 나쁜 임금이었을 겁니다. 연산군에 대해 우리가 아는 내용은 주로 연산군의 실록(《연산군일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연산군을 쫓아내고 들어선 중종 조정에서 《연산군일기》를 썼습니다. ‘중종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실제보다 더 나쁘게 연산군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신하들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동인이 집권했을 때 편찬된 실록에서는 서인이 나쁘게 묘사된 편입니다. 서인이 집권했을 때 나온 실록에는 동인이 나쁘게 나오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왕조실록은 탁월한 역사서임이 틀림없어요. 세계 유명 역사서와 견주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실록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풀어서 소개합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더불어 사냥하러 갔다. 사냥 중에 임금이 말에서 떨어졌다. 낙마 사고에 놀란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신하들을 두루 살핀 임금이 명령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임금은 어의(御醫)보다 먼저 사관(史官)을 찾았습니다. 사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명령했습니다. 낙마 사건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사관이 알면 실록에 기록될 테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아! 임금, 딱합니다. 임금이 보지 못했을 뿐, 그 현장 어딘가에 사관이 있었습니다. 사관은 임금

이 낙마한 것과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임금의 명령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실리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임금은 누구일까요?

태종입니다. 그 무섭다던 태종 이방원입니다. 사관을 불러 “쓰지 마라, 쓰면 죽는다.” 위협할 수도 있고, 사관이 기록한 것을 가져오게 해서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사관이 기록하는 행위를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습다. 보지도 않았습다. 임금은 완성된 실록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은 임금의 눈치 보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사관

사관이 단순히 조정의 대화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자기 생각과 견해도 함께 적었습니다.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인 1638년(인조 16), 인조는 강화의 읍치(邑治, 치소)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화읍에 있는 강화군청을 다른 면으로 이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하를 강화로 보내서 후보지 몇 곳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읍치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한 사관이 자기 생각을 덧붙여 실록에 남겼습니다.

“강도(江都)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어서이니, 이것이 어찌 지형이 그래서였겠는가. 그런데 지금 급급히 소재지를 옮기려 하니, …천험의 형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다시 김정·장신과 같은 자에게 지키게 한다면 전과 같을 뿐이다. 묘당은 적임자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읍만 옮기려고 힘쓰니, 아, 이상하다.”

강화유수로 있을 때 돈대에 돈사(墩舍)를 지은 사람이 조사석입니다. 조사석도 사관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현종 때입니다. 어느 날, 현종이 신하들과 격하게 논쟁하다가 불쑥 명령합니다. “사관은 지금 오고 간 말들을 기록하지 말라.” 역사에 남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사관 조사석이 응답합니다. “비록 기록하지 말라는 분부를 받았으나,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적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조선왕조실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관의 치열한 기록 정신과 그 기록에 대한 임금의 존중! 오늘날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록을 보관하는 곳, 사고

조선왕조 오백 년 그 긴 세월 한결같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까지 실록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험한 세월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과정을 살펴봅시다.

실록을 쓰고 보관하던 관청이 춘추관(春秋館)입니다.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이지만,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또 역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조선 전기에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사고·성주사고·전주사고, 이렇게 4곳의 사고(史庫)에 실록을 보관했습니다. 한 곳에만 두었다가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이 정도면 뭐, 안전하죠.



강화 정족산 사고



무주 적상산사고 내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춘추관·충주사고·성주사고를 불질렀습니다. 실록도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주사고만 무사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전주사고의 실록이 여기저기로 옮겨지다가 강화도까지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한질 남은 실록을 다시 인쇄하고 사고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춘추관·정족산사고·태백산사고·오대산사고·적상산사고에 실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사고가 4곳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5곳이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지방의 큰 도시에 사고를 설치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또 나더라도 외적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산속에 사고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남은 실록은 어느 사고본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춘추관 실록은 1811년(순조 11)에 화재로 불타고 말았습니다. 오대산사고 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관동대지진(1923) 때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적상산사고 실록은 6·25전쟁 때 북한군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 남은 것은 강화 정족산사고 실록과 태백산사고 실록뿐입니다.

강화 정족산사고

정족산성(삼랑성) 안에 정족산사고가 세워진 것은 1660년(현종 1)입니다. 지금과 거의 같은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것은 1707년(숙종 33)입니다. 담장 안에 건물 두 개가 나란히 서있는데요, 긴 건물이 장사각(藏史閣)이고 작은 건물이 선원보각(璿源寶閣)입니다.

원래는 장사각 5칸, 선원보각 5칸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장사각만 5칸으로 짓고, 선원보각은 3칸으로 줄여 지은 겁니다. 장사각에 실록 등을 보관하고, 선원보각에는 왕실 족보를 보관했습니다.

깊은 산중에 사고를 두면, 그걸 누가 지키나?

산속에 누가 살지요? 산적이요? 예, 산적이 살고, 또 스님들도 삽니다. 산속에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사고 근처 사찰에 해당 사고 관

리 업무를 맡겼습니다. 오대산사고는 월정사, 태백산사고는 각화사, 적상산사고는 안국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정족산사고는 전등사입니다.

전등사 명부전 서쪽 기슭에 정족산사고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전등사 경내에서는 사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묘하게 숨은 자리입니다. 사고의 관리를 오로지 사찰에만 맡겨 둔 것은 아닙니다. 사고마다 참봉을 두어 사고 건물의 이상 유무를 살피게 했습니다. 정족산사고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지은 정족산사고 건물이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했습니다. 1931년 이후 언젠가 허물어져 주춧돌 정도만 남은 빈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건물이 다른 곳으로 이건(移建)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사고 건물은? 1999년에 옛 모습과 거의 같게 복원한 것입니다.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跡圖譜)》 11집(1931)에 정족산사고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과 발굴 결과 등을 토대로 다시 지은 것이예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정족산사고의 책들을 약탈해갔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죠. 잘못된 정보가 퍼진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사료를 뒤적어보니 《고종실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프랑스군이〉 강화부의 감곳진으로 곧바로 향하여 망루를 파괴하고 공해(公廨)를 불태워 버리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소와 가축을 약탈하였으며 사고에 있는 책들을 배로 모두 약탈하여 실어갔다.”

‘응? 이게 뭔 소리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사고(史庫)가 아니라, ‘箴籍(성적)’이라고 나옵니다. ‘箴’이라는 낱선 글자는 ‘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사고가 아니라 ‘서고의 책’입니다. 여기서 ‘서고’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정족산사고가 아니라 외규장각입니다. 외규장각을 정족산사고로 잘못 해석한 것인데, 이 오류가 그대로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병인양요 정족산성 전투 때 조선 양헌수 부대가 패배하고,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점령했다면 정족산사고는, 그 안에 있던 실

록은,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군이 사고도 불 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록은 무사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실록이 정족산사고 안에 없었거든요. 《고종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유수 이장렴이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서양 오랑캐들이 강화부를 점거하였을 때 약탈이 장차 산성 안에까지 미치게 되자 서리 조희영 등 7인이 외파로 떨어져 있는 깨끗한 곳에 토굴을 파고 선원각과 사각에 보관되어 있던 책계들을 모두 임시로 봉안하였는데, …”

그러합니다. 조희영을 비롯한 일곱 사람이 만약을 대비해서 실록 등을 토굴에 옮겨 감췄던 것입니다. 조·희·영, 이름 석 자, 기억하고 싶습니다.

적상산사고에 가보니

어느 카페 한 곳에 가보려고 서울·인천에서 강화에 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든, 아들에게 말했습시다. “야, 카페 하나 가려고 일부러 강화까지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옛날 사람 무덤 하나 촬영하러 충청도도 가잖아.” 아, 맞는 얘기네요. 홍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적상산사고 하나 보려고 전라도 무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해 마음만 먹다가 드디어 가서 사고를 보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사고 안을 일종의 실록 전시관으로 꾸며 놓은 게 부러웠습니다. 사고 전담 해설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정족산사고는 거의 언제나 잠겨 있습니다. 마당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담 밖에서 까치발을 하고 건물을 보아야 합니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를 하는 가을에만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고 안에서 작품 전시회도 합니다.

평시에 대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탐방객들이 사고 마당까지라도 들어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차후, 사고 내부 개방과 활용 문제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사고가 우리 정족산사고입니다.

강화도 주민들의 응원도 헛되이... 'APEC 인천유치 실패' 반발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도 주민들은 뜻을 한데 모아 응원하고 기원했다. 강화읍내는 물론이고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마니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막해수욕장, 지역 이장들이 모이는 이장회의는 물론이고 강화도의 산과 강, 들에서 한마음으로 외쳤다. 내년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꼭 열게 해달라고. 군민들은 APEC 정상회의가 구체적으로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피부에 확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강화가 속해있는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더욱 성장하고 내 고장 강화군이 크게 발전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강화군민이 보낸 뜨거운 열망은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인천시가 유치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정부(외교부)는 지난 6월 20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개최지를 경북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유치 결정이 잘못됐다고 강력한 반발하고 있지만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2025 APEC 유치 도시'를 놓고 인천시를 비롯해 제주도와 경주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막판에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함은 물론 중앙 언론을 통해서까지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인천시는 이동성과

접근성, 세계적 수준의 기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뛰어나 내심 개최 도시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아리송한(?) 결정에 탈락하고 말았다.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채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 인천시가는 더욱 반발했다.

개최 도시 탈락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회견을 갖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북 경주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이번 선정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7일 개최도시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개최도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을 추진', '~이 가능'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인천시는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다른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이며,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이 진행된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한 경주시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묵을 5성급 호텔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2개소 2객실에 불과하고 만찬장으로 제안한 월정교는 협소한 목조건물이어서 최대 1000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고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인천을 두고,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마치 수능 만점자를 탈락시킨 것과 같은 참 나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앞선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조만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서도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인천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각종 카톡과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접근성과 이동성에서 가장 탁월한 인천이 탈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주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파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는 단순한 인천만의 발전이 아닌 대한민국 국격 상승의 기회이기에 반드시 인천에서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명이 모이는 국제회의이다. 정상회의를 비롯해 관료회의, 기업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에서 처음 열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정상들이 모두 모여 부산을 뛰어넘어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상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열린다.

교육

교육 체제와 학교의 변화



이 대 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앞으로의 교육체제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개방적인 체제로 변모할 것이다. 시간이나 장소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할 것이다. 학습체제는 더욱 개별화되어 갈 것이다. 각자 자신의 학습 목표에 따라 자기에게 적합한 내용이나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스스로 학습계획을 마련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곳은 학교이다. 전통적으로 지식교육을 주된 임무로 수행해 오던 학교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친다고 해도 학교가 컴퓨터나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나 속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학생들도 학교로부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가 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학교는 암기식 지식의 주입교육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암기한 단순 지식은 쓸모가 없다. 열심히 외워서 시험지에 답을 쓰고 나면 모두 필요 없는 지식이 된다. 지식의 암기나 저장은 기계에게 넘기고, 사람이 할 일은 그 지식을 다루고 조작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중심 목표는 창의성 함양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이는 지능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응하고 생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창의성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획일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평등 교육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적성과 진로 또는 문제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자기의 능력과 계획에 맞춰 학습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 교육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단일 교과서를 똑같이 사용하도록 한다면, 수능과 같은 국가 관리의 단일화된 시험 방식은 학교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창의적인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

한한다. 또한 창의성 교육을 위해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객관식 검사는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객관식 검사는 교육의 목적이거나 타당성보다 지식의 단순 암기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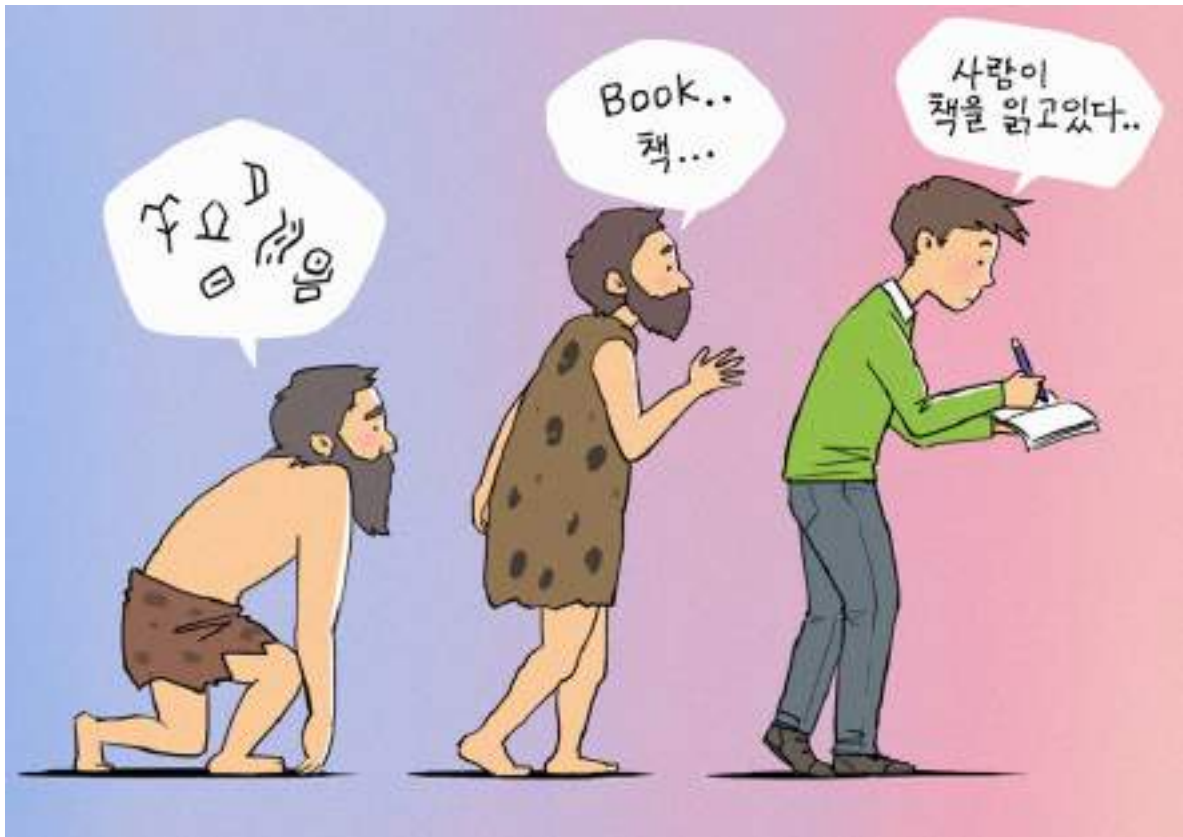
학교의 개념 자체가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 지능 정보사회에서는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들의 문제를 제시하고, 교사의 지도로 상호 협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찾고 해결해 가는 학습공동체라는 개념과 인식을 정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교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으로서 학교 교육이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보다 오히려 둔감했다. 하지만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교도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학교가 사회변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탐바꿈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생활을 준비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 하는 장소로 변하기를 기대해 본다.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

오늘 읽은 책이 우리아이의 미래다

내가면 황청리 멘토의힘 대안교육센터 지도교수 유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에 비하면 신체 조건은 보잘것없습니다. 대신 가진 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던지기동작입니다. 인간과 신체 구조가 유사한 침팬지는 공을 던지는 최고속도가 약 시속 30km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은 초등학교 소년이 던져도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투수의 공 던지는 속도는 시속 160km를 오갑니다. 이에 대하여 진화론자 다윈은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며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 결과 독특한 던지기 능력을 얻으며 사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인간 최고의 기술, ‘읽고 쓰기’

흔히 ‘기술’이라고 하면 손으로 무엇을 고치거나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던지는 능력처럼 인간의 몸에 내장된 기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동작을 하는 등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훈련된 기술도 있지만 모든 인류가 함께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보다 세밀

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집단 내 의사소통과 협동을 도왔고 개념을 통해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점점 더 많은 것을 탐구하며 해결해 나가는 공부하는 욕구를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말)이 발달하면서 그 말을 담는 문자를 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또 다른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문자가 발달하기 시작한 이후 약 4000년간 인류는 글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명이란 단어는 한자로 ‘文明’입니다. 즉 ‘글로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종교·역사, 과학 등 인류의 모든 업적은 글 위에 쌓이고 전수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량 인쇄술 발명은 터보 엔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독서는 뇌가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고 지능을 어떻게 확대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던지기가 사냥을 위한 고도의 신체 기술이었듯이 읽기는 뇌속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신생 기술입니다. 따라서 독서는 뇌가 새로운 능력을 학습해 지능을 확대시켜가는 최고의 방법임을 사회현상을 이미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이런 읽기 능력을 습득한 건 불과 수천 년 전입니다. 더구나 대중적으로 글 읽기는 불과 수백 년 전, 근대 교육이 도입된 후에야 실현됐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지적 능력의 양극화’에서 온다

많은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혁명으로 인간의 위기와 부(富)의 양극화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보다 먼저 우려해야 할 것이 ‘지식(知識)의 양극화’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짧고 쉬우며, 직관적인 이미지에만 반응하면 자칫 생각마저 얇고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면 단순하게 살아가는 대중과 창의적 지식활용자간 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의 활용능력은 사회에서 또 다른 지배와 피지배계층을 만들어냅니다.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여럿 탄생했습니다. 그중에 1993년 설립된 미국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NVIDIA)를 들 수 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 전기공학자이자 엔비디아가 설립하고 CEO로 있는 이 회사는 최근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로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비결은 인공지능(AI)라는 혁신기술을 선점했기 때문이며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뇌가 갖고 있는 새로운 학습능력을 활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학습능력을 키우는 독서

오늘 우리 아이가 읽은 책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더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이유를 말하는 핵심을 찾는다면 첫째, 인간의 두뇌가 발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읽고 쓰기’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명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 밝혀져 온 인류의 모든 업적은 글 위에 쌓이고 전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전수 되었기에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문명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위해서 ‘강화 다음 세대아카데미’에서는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운동가로서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은 ‘공책토론클럽’이라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공책토론클럽은 강화의 다음세대가 세계를 꿈꾸는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는 교육봉사활동입니다.

송해면 13개 기관단체, 화재 피해 독거노인에 성금 전달



송해면 13개 기관단체 화재 피해 독거노인에 성금 전달

강화군 송해면 13개 기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노인회, 방위협의회, 체육진흥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회, 한여농, 농촌지도자회, 쌀작목회)가 지난 4월 화재 피해를 입은 독거노인 가구에 성금 380만 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금을 전달받은 피해 어르신은 “평생 살아온 집이 모두 타버려 상심이 컸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시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면서 “상처 입은 어르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진 송해면장은 “송해면 화재 피해 가구를 위해 성금을 마련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13개 단체장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해 어르신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화도면, 폭염 대비 어르신 안부 확인



화도면, 폭염 대비 어르신 안부 확인

강화군 화도면(면장 박수연)이 지난 20일 조성진 화도면 이장단장과 함께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정방문을 추진했다.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 관내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라면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이날 방문했던 어르신 한 분은 “날이 무덥고 힘들던 차에 면장님과 이장단장님이 함께 오셔서 근황을 물으며 라면도 전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연 면장은 “바쁘고 무더운 중에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격려해 주신 이장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긴급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와 어르신들께 여름철 건강 음식 대접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강화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2일 양사면에서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IBK 기업은행과 인천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했으며, 전문 셰프와 학생들이 참여해 곰탕 및 전복, 연어구이 등 여름철 건강 음식을 만들어 소외된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센터 관계자는 “하루 전부터 식자재를 다듬고 음식을 조리한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강화군 전역에 따뜻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Wee센터 외부상담연계 및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동화뮤지컬] 실시

동화뮤지컬을 통해 감정 의사소통과 내면적 성장을 도와 사회성 증진도모



동화뮤지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Wee센터는 5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8학교에서 외부상담연계 및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동화 뮤지컬을 진행하고 있다.

동화 뮤지컬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학습효능감 상승, 학습 어려움 학생들의 마음 치유,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동화 뮤지컬은 학교가 학생 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공연 도중 학생들과 소통을 하며 학생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가도록 돕는다. 뮤지컬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서로의 다양성을 알고 존중하며 심리 정서적, 학습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강화 미래교육지원센터 정철모 과장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강화의 역사와 자연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군, 여름방학엔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강화군이 강화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가족 단위 교육프로그램인 ‘유물 속 이야기-도·토기 수저받침 만들기’와 ‘유리창 조류 충돌 방지 보드게임’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20일~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27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구글 폼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강화역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빗살무늬토기, 반달돌칼, 청자음각매병, 수자기를 주제로 강화의 선사시대, 고려시대, 근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도·토기 제작 기법(음각·양각 등)을 이용해 유물 모양 수저받침을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강화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24년 기획전시 〈강화의 새와 유리창 충돌〉과 연계해 자연사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강화의 새를 주제로 새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 세밀화, 그림, 나무 조각, 박제 표본, 영상 등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총 6회(역사 3회, 자연사 3회)로 가족 단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 정보는 강화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박물관 관계자는 “강화의 역사와 자연을 알아보는 뜻깊은 교육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4년 강화박물관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안내

강화역사박물관

유물 속 이야기: 도·토기 수저받침 만들기

일시 7/27, 8/3, 8/24 (토요일 14:00~16:00)

장소 강화역사박물관 2층 강당

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유물을 선택하여 도·토기 제작 기법으로 수저받침을 만들어 보는 시간 (빗살무늬 토기, 반달돌칼, 청자 매병, 수자기)

강화자연사박물관

유리창 조류 충돌 방지 보드게임

일시 7/20, 8/10, 8/17 (토요일 14:00~16:00)

장소 강화자연사박물관 1층 교육실

기획전시 〈강화의 새와 유리창 충돌〉과 연계한 보드게임, 매년 유리창 충돌로 사라지는 야생 조류의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교육대상 가족 단위 누구나 (역사 1회 정원 40명, 자연사 1회 정원 20명) ※ 초등 학년별 차등이 있는 경우 연도서 보호자 동행 필수

교육비용 무료

신청기간 2024. 6. 27 (목) ~ 정월 마감까지 오전 10시

신청방법 아래의 QR 코드 신청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

* 역사, 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은 월요일까지 내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032-933-108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

독자 여러분의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김포



삼성인쇄광고기획이 통진에도 멋스럽습니다!!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스티커
봉투 · 수첩 · 전단지
상패 · 명패 · 청첩장
배너 · 깃발 · 현수막
팩스 · 스캔 · 포스터
인쇄 · 복사 · 쇼핑백
제본 · 무선 · 스프링
행사 · 홍보 · 기념품
전산용지 · NCR지 제작
책 전문 출판



최신시설
장비완료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 디자인 전문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1-988-9225 Fax. 031-988-9226

☎ 010-9755-6844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34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